

# 대학 온라인 강의, 학생은 짜증 교수는 답답

### “학원 동영상으로 수업 대체” 온라인 게시판 학생 불만 폭주 교수들 “최악 상황” 피로감 호소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역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면서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학생들은 일부 교수들의 온라인 강의 수준에 불만을 터뜨리고, 교수들도 익숙치 않은 수업준비와 학생들의 수정요청 등에 피드백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3월 말까지만 해도 온라인수업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연장됐다. 상당수 대학이 아예 올해 1학기를 통째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일부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에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쓰거나 과제만 내주는 등 비교적 무성의한 방식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학교별 커뮤니티 앱(에브리타임) 중 광주지역 한 대학교 익명게시판에는 “대학 일부분이 수업이 난리 났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수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게시글에서 익명의 한 학생은 “강의를 유튜브로 대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강사가 자주 바뀌어 일본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럴 거면 굳이 교수님께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문의를 남겼다.

이에 강사는 댓글로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다른 교수의 수업을 들어라. 99%의 학생이 잘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의견으로 혼란을 만들지 말라”는 답변을 달았다.

이어 “OOO 학생은 리포트도 내지 말고 시험도 보지 마라”면서 “OOO학생을 기억하겠다. 학생은 일본어를 너무 잘하니 구태여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으니 다음 학기에 다른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라”는

글을 잇달아 작성했다.

그리고 전체 학생에게 학생의 실명을 언급하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호숫물을 흐리고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3시간 정도 저와 일본어로 대화해서 저를 이기면 무조건 A+드리겠다, 지면 F가 되겠다”며 “그러니 인내하고 교수를 믿고 공부하라”는 전체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교수의 글을 접한 대다수 학생들은 비상식적이고 수준 이하의 표현이자 학점을 무기로 논리도 안되는 억지를 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특히 9시간 동안 자면서 듣는 영상 강의도 있어 수업의 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유명 학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무성의한 경우도 있었다는 댓글들이 연달아 나왔다.

이 대학 커뮤니티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앱에 다른 광주지역 대학교 게시판에도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불만들은 잇따랐다.

‘사이버 강의 한달동안 과제만 내준 교수가 있다’는 게시글과 온라인 수업일정과

과제의 공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교수에 대한 불만의 게시글도 넘쳐났다.

학생들도 일부 열심히 고생해서 강의를 해주는 교수님들도 있지만, 일부 근무태만인 교수들의 행태를 이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교수들도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숙치 않은 수업형태의 강의 준비, 다양한 온라인수업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촬영이 안 되기도 하고, 촬영을 다 하고 나니 음성 녹음이 빠져있기도 하고, 기껏 몇 시간동안 파일 전환까지 마쳤지만 동영상상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항의 문자와 댓글이 빗발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한 대학교수는 “이 나이에 동영상 편집을 해 보겠다고 유튜브로 배우다 좌절해서 포기하기도 했다”면서 “학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서로 교감을 나누지 못한 채 진행되는 수업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고 말했다.

## 광주교육청 중·고교용 5·18 인정 도서 개발

### 초간본 전국 교육청 배포 배경·주먹밥·왜곡 등 담아



광주교육청이 중·고교생을 위한 5·18 민주화운동 인정 도서를 개발해 초간본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5·18 기념재단과 업무 협약을 하고 현장 교원들과 함께 10개월에 걸쳐 5·18 인정 도서를 개발했다.

중·고교생 눈높이를 고려해 개발된 인정 도서는 질문·만남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구성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5·18의 발생 배경, 전개 과정 등 역사적 사실은 물론 주먹밥, 영화 ‘택시 운전사’ 등 흥미를 끌 만한 내용과 역사 왜곡, 사회적 연대 등 깊이 있는 주제를 담은 23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인정 도서로 승인되면 교과서로 위상을 갖추고 전국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 개설로 내실 있는 5·18 교육이 이뤄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취국 광주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교육적 가치는 5·18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있다”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보편적 5·18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데 교과서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믿고 전국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성범죄 전력 있으면 교사임용시험 못본다 교사임용령 개정 의결

앞으로 교사 자격을 갖춘 자라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그동안 성범죄 전력에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었다. 정작 임용시험과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교육부는 “현재도 시험 공고 시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었다”며 “법적 강제성은 없어 접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가 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과 관련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물 잘 나오나...등짐펌프 점검  
건조한 날씨속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자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와 산불 진화대원들이 28일 오후 운정동 산불감시초소에서 현장순찰 전 등짐펌프 등 개인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시, 5·18사적지 옛 적십자병원 매입 추경안 편성

광주시가 민간 매각 위기에 놓인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인 ‘구 광주적십자병원’(광주일보 2020년 4월 23일자 6면)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절차를 밟는다.

광주시는 28일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과 구 광주적십자병원 매입비용 등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7174억원 규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6281억원, 특별회계 893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은 6조 6686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시는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해 가계 긴급생계비 91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최근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3313억원(국비 2663억원, 시비 650억원)을 반영해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1만2000명 이상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를 거쳐 5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지스트, 약효 오래가는 당뇨병 치료제 개발

### 권인찬 교수 연구팀 치료기간·고통 획기적 감축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연구진이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혈당의 농도를 획기적으로 빨리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또한 치료약의 약효를 최적화해 환자의 치료비용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혈액내 포도당 농도(혈당)가 높게 유지되는 병이다. 체내 혈당 수치가 높게 지속되면 망막 질환, 신장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어 당뇨 환자에게 혈당 관리는 절대 수칙이다.

지스트 신소재공학부 권인찬 교수 연구팀은 체내에서 긴 반감기를 가지며 혈액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단백질인 알부민을

대장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GLP-1’과 결합해 ‘GLP-1’의 반감기를 증가(생쥐에서 160배)시켰다. 이는 알부민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기존 기술들에 비해 알부민 연결에 의한 반감기 증가 효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진은 ‘GLP-1’과 알부민의 결합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GLP-1’과 알부민 결합체의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세포실험과 생쥐를 대상으로 한 당부하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따라서 알부민의 결합 위치가 치료용 펩타이드의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펩타이드 약품의 반감기를 증가시키고 더 수월한 생산이 가능해 향후 다양한 치료용 펩타이드 약품 제조에 적용시 치료의 기간, 비용, 환자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교사 10명 중 6명 “학년별 순차등교 선호”

교사 10명 중 6명은 등교개학을 할 때 학년별로 순서를 뒤서 차례로 등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등교개학, 방식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25-27일 사흘간 전국 교사 3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였다.

등교 방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총

2999명 중 “온라인 개학 방식을 준용한 학년별 순차 등교”가 63.1%로 가장 많았다. 일시에 모든 학교급, 모든 학년 동시 등교는 19%로 뒤를 이었다. 학년별 오전, 오후로 등교하는 2부제 방식은 8.4%였다.

다음달 6-13일 중으로 점쳐지는 등교개학 시기를 두고는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에 따른다’가 응답자 2998명 중 59.2%가 동의해 가장 많았다. /김대성 기자 bigkim@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참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